

# 재일 한국인의 주생활 행태와 주거만족도

황기아

동아대학교 생활과학대학 가정관리학과 교수

이주로 인한 정착과 주거이동은 주거 결함을 제기하기 위해 일정한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주거이동과 달리 한 노동시장이나 주거시장에서 다른 시장으로 장거리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재일 한국인이 일본에 이주하게 된 동기와 이주 방법은 매우 독특하기 때문에 이주를 통해 주거 생활을 조정해 가는 과정은 주거 사회학적으로 큰 관심의 대상이 된다.

한국주거에서 수행되는 주거행태에 관한 관련연구는 한국의 사회적·물리적 차원과 정신 문화적 의미를 찾는 데 유용한 접근이다. 그 시대의 주거문화와 주거행태는 지역주거 공간의 독자성과 정체성으로 나타나며,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의 생활문화양식으로 표출된다.

본 연구는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재일교민)들을 대상으로 지역적·문화적 차이가 있는 일본식 주거에서 한국적 생활내용을 어떻게 적응하고 변용하며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 한국인의 일본에서의 주거실태와 주거행위와 행태, 주거 만족도에 관한 것이다.

연구대상은 일본 내 한국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간사이 지방을 집주지구로 하여 오사카, 고베, 히메지 소재 재일 한국 민단 소속의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현지조사 방법에 근거하여 거주자와의 면접을 통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2002, 8), 수정된 질문지로 연구자료를 수집하였다(2003, 12).

자료분석은 SPSS Program을 이용한 수량화 분석으로 관련성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도출된 연구결과는 재일 한국인의 주생활 행태와 주거만족도 파악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